

삶을 바꾸기 위한 가르침의 실천

- 초하루법회 원만 봉행 -



초하루법회



송성심월 관음회장 발원문 봉독

경자년 4월 23일(음력 4월 1일) 봉원사 설법전에서는 초하루법회가 원만하게 봉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근 두 달여 만에 열린 법회였다. 10시부터 설법전 입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신도들은 체온을 측정하고 손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한 후에야 설법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신자들은 거리를 두고 서로 담소를 나누었다. 주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와 빠른 종식을 기원하는 말들이 오고 갔다.

초하루법회는 법문을 통하여 한 달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더욱더 발심 수행하는 첫날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한 달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는지 스스로의 허물을 살피는 시간을 갖는 것도 초하루법회가 갖는 또 다른 의미이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법회는 삼귀의(三歸依)와 삼배(三拜)로 시작되었다. 이어 봉원사 교무 법수 스님과 소임 스님들의 천수경 등의 독경이 1시간 여 남짓하게 진행되었다. 송성심월

관음회장은 발원문에서 “탐냄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맑고 밝은 본래의 성품을 등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불법의 참뜻을 믿고 닦아 바른 마음과 바른 행동 그리고 바른 말로 살아가고자 발원하옵니다.”라며, 오늘의 발원이 모든 이들의 가슴에 전달되고 중생을 위해 더욱 더 큰 일을 하게 해 주기를 서원(誓願)하였다.

이어 교무 스님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등,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한 신신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끝으로 봉원사가와 산회가가 제창되고 두 달여 만에 열린 초하루법회가 원만히 봉행되었다.

법회 후에는 코로나19 감염 방지 목적으로 법당 내부와 출입구 등의 소독이 실시되었다.

오늘날, 초하루법회 의식은 단순히 복을 빌고 무사고나 무재앙을 기원하는 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빌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묵은 때, 잘못된 낡은 버릇을 과감히 버리고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을 때 비로소 바뀌는 것이다. 내가 부족한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또 넘친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버릴 것과 간직해야할 것을 되돌아 보며, 못미치는 자신의 부족함을 타이르자. 더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해야 자신이 소원하는 바를 무탈하게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하자.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불교 최대의 명절인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옵기를 삼보전에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부처님의 크나큰 은혜가 이 땅에 내려져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봉원사에서는 4월 30일(목요일) 봉행 예정되었던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 일정을 윤 4월 8일(양력 5월 30일 토요일)로 연기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의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에 동참하고자 함이오니 신도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신도님들께서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와 관등법회 등에 무루 동참하시어 온 세상을 불국정토로 가꾸어 우리 모두 부처님의 은혜와 공덕으로 소원성취 하시기를 삼보전에 기원합니다.

안 내

- 일 시 : 2020년 5월 30일(음력 윤달 4월 8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매시 정각 축원)
- 장 소 : 봉원사 도량
- 문 의 : 각 화주스님 및 종무소(02-392-3007~8)
- 등안내(수시접수)
 - 대웅전 1년 가족등 : 50만원
 - 설법전 1년 가족등 : 10만원
 - 명부전 1년 영가등 : 10만원
 - 4·8 마당 가족등·영가등 : 5만원

※ 사전에 화주스님께 미리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혼잡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온누리에 자유 평등 질서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회주	심만춘	주지	이운봉	부주지	조현성	총무	박연허	교무	조법수	재무	엄혜담
총회의장	전지암	총회의원	이석천		김태호		김향천				

대중

조석봉 이경암 박인공 최법산 조환우 김구해 최성담 박용담 박고산 박수암 석선암 마일운 심만춘 최원허 이기봉 박거산 장운호 이운봉 조현성 조인각 김효천 김미산 조혜산 조고담 김선각 김태호 조효광 박연허 박처명 전지암 이석천 김향천 엄혜담 조벽담 조법수 서정인 마정교 박경재 김법길 박진해 박정훈 안도안 이정명 최문진 박진경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맑고 향기롭게 온 인류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길



관음회

회장	송성심월
부회장	이갑숙
총무	최선덕화 한원명지
재무	전법연지 전자성각
봉사부	김순복 김순자 김경란

명예회장	송진여심
고문	송화영 안성자
	노대행심 이광명심
	황무량성

합창단

단장	임정연
부단장	강순희 최병수
총무	김인숙

천년고찰 봉원사 신도회



사방삼세에 맑고 향기로운 부처님의 자비하신 가르침이 항상 같이하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유자 김구해	영산재보존회 회장 이운봉
전수교육조교 이경암 마일운 이기봉 한동희	영산재보존회 일동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삼계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신을 봉축드립니다.



범음대학 학장 조현성 교학처장 김향천 옥천범음대학 임직원 · 학생일동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의 역사



기해년 부처님오신날 점등식(봉원사)



연등

흔히 민간에서는 연등이 연꽃 모양이 많아 연꽃을 가리키는 '련(蓮)'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연등의 연은 불을 붙이거나 태운다는 '연(燃)'자를 쓴다. 말 뜻 그대로 등불을 밝힌다는 뜻이다. 연등(燃燈)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번뇌와 무지로 가득찬 어두운 세계(無明 : 무명)를 밝게 비춰주는 부처님의 공덕을 칭송하고,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고자 등(燈)에 불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1. 신라시대

이러한 연등이 삼국시대 신라에서는 '간등(看燈)'이란 이름으로, 신라 진흥왕 12년(서기 551년)에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들을 위하여 사찰에서 7일 동안 국가의 주관으로 왕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열렸고, 선덕여왕 때는 황룡사에서 이 간등 행사가 열렸다는 것 외에도 다수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시대 이래로 연등 행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치러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부처님오신날을 간등절(看燈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신라의 간등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2. 고려시대

고려시대에 이르러 연등은 전통의례와의 습합(習合)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성대히 국가적 종교놀이문화로 발전하였다. 고려 태조가 남긴 '훈요십조(訓要十條)'에는 팔관회(八關會)와 함께 연등회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기록에 따르면 음력 정월 보름과 2월 보름에 국왕과 온 백성이 풍년을 기원하며 궁궐부터 시골까지 화려한 연등을 밝히고 잔치를 열고 가무를 즐겼다. 또 왕이 행차했다가 돌아오는 가두행진의 길 양옆에는 이를 밤에 걸쳐 3만 개의 등불을 밝혀 불빛이 낮과 같이 밝았다고 한다. 이 행사는 연등도감(燃燈都監)과 팔관보(八關寶)라는 행사주관기구를 두고 직접 국가에서 재원을 조달하여 주관하는 전국가적 행사로 발전하였다

고려말기 공민왕 이후에는 여러 종류의 등을 만들어 각종 깃발로 장식한 등대(燈臺)에 등을 달아 온누리가 연등일색으로 변한 저녁에 장안의 남녀노소가

함께 즐겼다고 한다.

3. 조선시대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초파일(부처님오신날) 연등은 계속되었다. 억불숭유(抑佛崇儒 :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함)의 분위기로 인해 연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부처님오신날의 등밝히기는 계속되어 왔다. 조선시대에는 밤에 통금행지가 있었다. 통금시간이 되면 종이 울리고, 그 후에는 거리에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금했다. 그러나 부처님오신날만은 통금이 해제되었고, 사월 연등은 민간에서 꾸준히 그 명맥을 이어 왔다.

4. 현대의 연등축제

신라시대 이래로 지금까지 1,500여 년 동안 민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온 연등 행사는 1955년에 이르러 현대식 연등회로 탈바꿈하였다. 그리고 1975년 부처님 오신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며 연등행사 참가자는 대거 늘어났으며, 1996년에는 '전통등'을 복원, 계승하여 연등축제로 이름을 붙이고, 불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과 외국인이 참여하는 전통 문화 축제로 발전하였다. 2012년에 이르러 연등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이 되었다.

이러한 종교축제(종교놀이문화)는 불교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일체감을 부여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었던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5월 30일(음력 윤 4월 8일) 토요일에 치러진다.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등과 꽃을 함께 공양하는 연등을 올려 부처님을 직접 뵈고 내세(來世)에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수기(受記)를 받도록 해봄은 어떠할까?

- ※ 수기(受記) : 부처님으로부터 내생에 부처가 되리라고 하는 예언을 받음
- ※ 내세(來世) : 불교 삼세(三世)의 하나.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 산다는 미래의 세상

제23장 상유품(象喻品)

▶ 어리석은 자들을 제도하리

我如象鬪 不恐中箭 常以誠信 度無戒人
아여상투 불공중전 상이성신 도무계인

나는 마치 코끼리가 싸움터에서 화살에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항상 참된 믿음으로 험뜯음을 참으며 어리석은 자들을 제도하리라

▶ 참된 신뢰를 받으리

譬象調正 可中王乘 調爲尊人 乃受誠信
비상조정 가중왕승 조위존인 내수성신

마치 잘 조련된 코끼리는 임금에 타기에 알맞은 것처럼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훌륭한 사람은 남으로부터 참된 신뢰받을 수 있네

▶ 스스로를 다스림만 못하다

雖爲常調 如彼新馳 亦最善象 不如自調
수위상조 여피신치 역최선상 불여자조

저 사나운 코끼리나 또 가장 좋은 코끼리를 아무리 항상 길들인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을 다스림만 못하네

생전예수재의 의미



윤달이 되면 사찰에서 행하는 법회 가운데 하나가 생전예수재(生前預修齋)이다. 생전예수재에서 생전(生前)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뜻이고, 예(豫 : 미리 예)는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라는 표현으로, 살아생전에 미리,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재(齋)의 형식을 빌어 부처님께 참회하는 의식을 뜻한다. 즉 살아있는 동안에 저지른 온갖 교만과 죄업에 대해 뼈저린 참회를 통해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남은 생을 의미있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의식이다.

생전예수재는 예수시왕생칠재(預修十王生七齋) 또는 예수재(豫修齋)라고도 부른다. 이는 사후에 갚아야 할 빛과 과보(果報)를 미리 갚아, 살아서 사후의 복전을 일구는 것이다. 사람은 죽은 후 49일간 중음계(中陰界)에 떠도는 고통을 받게 되는데, 예수재를 행하면 현생의 삶 가운데 지은 무수한 업과 자신의 과보를 청정케 하여 그 고통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원래 예수재는 49일간 베풀어야 한다. 하지만 근래에는 대개 하루 밤낮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해도 저승(冥府 : 冥府)을 상징하기 위해 본재(本齋)는 밤에 행한다. 즉 예수재를 행하는 하루는 바로 자신이 죽은 다음에 중음계에서 겪는 고통스런 하루에 해당한다. 그래서 자신의 업을 청정케 하는 의미로서 재(齋)를 행하며, 재를 행함으로써 중음계의 고통 없이 재의 기간에 익힌 습성의 방향에 따라 또 다른 좋은 몸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생전예수재를 모시는 공덕에 대하여 "이것은 봄에 한 알의 씨앗을 뿌려 가을에 수많은 씨앗을 거두는 것과 같다."고 하시며, 또한 그 공덕에 대해 10가지로 말씀하셨다. "첫째는 가난과 어려움을 면한다. 둘째는 배고픔과 추위를 면한다. 셋째는 선망 부모가 모두 왕생극락한다. 넷째는 수명 장수한다. 다섯째는 생사의 공포심이 없어진다. 여섯째는 몸이 건강하고 인물이 특출해진다. 일곱째는 재산이 풍부하고 권속이 많아진다. 여덟째는 지위와 명예가 사방에 뻗는다. 아홉째는 삼매(三昧)가 현저하여 수시로 명부사자(冥府使者)와 염라대왕이 친견한다. 열째는 생전과 사후에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옹호한다."

흔히들 예수재를 자신의 극락왕생만을 비는 '기복신앙(祈福信仰)'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예수재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나온 편견이다. 예수재의 진정한 의미는 자력(自力) 수행(修行)의 실천에서 찾아볼 수 있다. 49재나 천도재가 죽은 뒤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과 달리 예수재는 자기 스스로 기도를 하고, 공덕을 쌓아 사후(死後)를 대비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수행과 공부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 많은 경전에서 "예수(預修)하고자 하거든 방생(放生)부터 먼저 하라."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재는 자신의 극락왕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보시행(布施行)으로 공덕을 쌓는 의례임을 알 수 있다. 즉, 선업(善業)을 쌓지 않은 사람도 재만 올리면 쉽게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스스로 노력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선행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예수재의 진정한 본질이다.

불교는 자신의 노력으로 해탈을 추구하는 종교이다. 그러나 아무도 없이, 그 어떤 도움도 없이 홀로 가는 길은 결코 아니다. 불보살(佛菩薩 : 부처와 보살을 아울러 이르는 말)의 보이지 않는 힘이 언제나 우리를 든든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생전예수재는 이러한 불교 수행의 근본 성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참회와 공덕으로 업장(業障)을 소멸하고, 지계와 보시으로써 스스로 내생(來生)의 복락(福樂)을 추구한다. 따라서 예수재의 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참다운 수행의 공덕을 쌓아가야 할 것이다.

- ※ 지계(持戒) : 계율(戒律)을 받들어 지키는 것
- 보시(布施) : 불자들의 가장 중요한 미덕 중의 하나로, 물질, 지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
- ※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생전예수재 봉행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도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주접수처 안내



봉원사 도량내에 새로운 기와불사 및 시주접수처가 마련되었습니다.

시주(施主)란 글자 그대로 '보시하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신도님들은 새로운 시주접수처에서 시주공덕을 쌓으시어 시련이 사라지고 더 많은 이익과 결실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 운영시간 : 오전 10시 - 12시, 오후 1시 - 3시
- 문 의 : 종무소 02-392-3007~8
- ※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접수처 시간을 위와 같이 조정, 운영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코로나19_우리가 이깁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주세요**

국민 행동 지침

 불필요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모두 연기 또는 취소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한 외출 자제하기	 악수 등 신체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 시키기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악수 등 신체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 두고 식사하기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부처/님/전/생/이/야/기

본생경(자타카) 61

자타카(Jataka)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 알려졌고 그 후 구전되다가 문자로 기록되었으며 동서양으로 이어져 이슬람화와 아라비아인 나이트 그리고 우리나라 삼국사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다. 판소리 '별주부전'으로 발전한 토끼와 거북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설화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인도를 비롯한 중국 등 동아시아에 전파된 것은 1세기부터 6세기로 보고 있다. 중국은 67년 축법란이란 분에서부터 285년 축법호라는 분의 생경(生經) 번역까지 5차례에 걸쳐 700여 편의 본생 설화가 한역 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본생경(本生經), 일본에서는 본생담(本生譚), 중국에서는 본생주(本生注) 등으로 소개되고 있다.

점성술에 관한 전생 이야기

옛날 범여왕이 바라나시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그 첫째 왕자였다. 그는 성년이 되자 득차시라에서 학예를 공부하고 아버지가 죽은 후 왕이 되었다.

그 무렵, 바라나시에는 부왕의 사제관이었다가 직업을 잃고 빈곤하게 사는 전(前) 사제관이 있었다. 보살은 그를 찾기 위해 어느 날 밤 변장을 하고 바라나시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때 어느 도적 한 명이 술병을 차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거리를 헤매는 보살을 보고 물었다.

“너는 누구냐?”

보살은 왕이라고 말할 수 없어 마땅히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러자 도적이 보살을 때려눕히고 차고 있던 술병으로 갖은 협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 전 사제관은 거리에서 서서 별을 바라보다가 왕이 도적의 손에 걸린 것을 알고 아내를 불렀다.

“여보, 우리 대왕님이 도적에게 붙들려 온갖 고초를 받고 있구려.”

사제관의 아내는 남편이 왕에게 관심을 갖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왕의 일에 상관할 것이 무엇 있소? 다른 바라문들이 다 알아서 할 것 아니오.”

사제관은 아내의 말에 다른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왕은 사제관이 부인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왕은 겨우 도적에게 놓여나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거리의 부랑자들에게 붙들렸다. 왕은 부랑자에게 겂옷을 벗어주며 사정했다.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 겂옷을 벗어 드리겠습니다. 부디 저를 놓아 주십시오.”

부랑자는 간청하는 이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어 그대로

놓아 주었다.

왕은 고마운 생각이 들어 부랑자들이 사는 집을 알아 두었다. 그러자 전 사제관은 또 아내에게 “여보, 우리 대왕님이 도적의 손에서 벗어났구려.” 하고 말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왕궁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왕은 궁에 거주하고 있는 사제관들을 불러 물어보았다.

“그대들은 어제 별을 보았는가?”

“네, 보았습니다.”

사제관은 왕 앞에 허리를 구부리고 대답했다.

“그래, 그 별이 길하든가, 흉하든가?”

“길했습니다.”

“아무 장애도 없었던가?”

“네, 대왕님. 아무 장애도 없었습니다.”

왕은 이번에는 대신을 시켜 부왕을 섬기던 전 사제관을 불러오게 했다.

왕은 그 사제관이 오자 다시 물었다.

“그대는 어젯밤 별을 보았는가?”

“네, 대왕님. 보았습니다.”

“무슨 장애가 없었던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대왕님은 도적들에게 붙들려다가 곧 놓여났습니다.”

“그래, 그랬느니라.”

왕은 궁에 거주하고 있는 사제관들에게 말했다.

“별을 보려면 이 사람처럼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

왕은 그 자리에서 궁에 있던 사제관들을 면직시켰다. 그리고 부왕을 섬기던 전 사제관에게 다시 말했다.

“나는 그대를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그대의 희망을 말해 보아라.”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다.

“대왕님, 제 처자들과 의논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서 의논해 보고 오라.”

전 사제관은 집으로 돌아가 부인과 아들, 양녀(養女)와 하녀들을 불러 모아 놓고 말했다.

“지금 대왕님이 우리가 희망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무엇을 청하면 좋을까? 어디 한번 말해 보아라.”

그의 아내가 먼저 젓소 100마리를 원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흰 백합 빛깔의 준마가 끄는 마차를, 양녀는 보주(寶珠) 가락지 등의 장식품을, 자신은 식읍(食邑)을 청하기로 했다.

그는 다시 왕에게 나아갔다. 왕이 그를 보고 물었다.

“그래, 그대는 처자들과 의논을 해보았는가?”

“네, 대왕님, 의논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희망은 일치하지 않았습디다.”

그는 그렇게 말한 뒤 왕에게 다음 계송을 읊었다.

모두 한집에 사는 사람이면서
그 희망은 갖가지였네.
나는 식읍을 희망하지만
아내는 100마리 젓소를 바라고 있네.

아들은 준마가 이끄는 마차를
양녀는 보주 가락지를 바라고
그리고 또 그 하녀는
절구통과 절구공이를 원했네.

왕은 그의 계송을 듣고 신하들에게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전 사제관에게는 다시 영예를 주어 자기 곁에 있도록 복직시켰다.

이달의 시

꽃을 보려면

정호승

꽃씨 속에 숨어 있는
꽃을 보려면
고요히 눈이 녹기를 기다려라

꽃씨 속에 숨어 있는
꽃을 보려면
어머니를 만나려면
들에 나가 먼저 봄이 되어라

꽃씨 속에 숨어 있는
잎을 보려면
흙의 가슴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려라

꽃씨 속에 숨어 있는
꽃을 보려면
평생 버리지 않았던 칼을 버려라



정호승/시인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침성대'로 데뷔. 1979년 '슬픔이 기쁨에게'를 출간. 슬픔이 담긴 시문을 짓는다고 하여 문학계에서 '슬픔의 시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림. 反詩 동인을 결성. 활동. 소설시문학상, 동서문학상, 정지용문학상 등 수상

● 사보 후원금 ●

이 승 환 1만원(인공 스님)
김 성 규 5만원(운봉 스님)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걱정 싹~”

음식물 바이오 소멸기 및 살균수 생성기



- 캐나다 밴쿠버 세계박람회 최우수 상품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 “녹색기술 인증기업” 선정
- 이노비즈 기업 선정, 정부 광고지원 대상 업체 선정

(주) 조은생활 문의 : 김순복(010-3182-3445)

| 재미있는 불교 전설 - 웅진 부암리(婦岩里)

며느리바위

아주 먼 옛날, 황해도 웅진군 부민면 부암리란 마을에 만석군 김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다. 그는 성품이 교활할 뿐 아니라 인색하기로 소문이 나서, 동네 아이들까지도 그를 '딱정쇠 영감'이라고 놀려댈 만큼 구두쇠였다.

한가위가 지나고 추수도 끝난 어느 가을 날, 육간대청(六間大廳)에 삼중대문의 큰 집에 살고 있는 김부자는 광에 가득 쌓인 벼섬을 둘러보며 매우 흐뭇해하고 있었다.

이때 대문 밖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시주하러 온 탁발승에게 쌀톨이나 내놓을 김영감이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목탁소리가 귀에 거슬렸던 모양이다.

“안에 누구 없느냐?”
“.....”
“거 아무도 없느냐?”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자 김영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얼른 대령해도 시원치 않을 터인데 몇 번을 찾아가도 아무 대답이 없으니 그럴만도 했다.

낮을 붉히며 언성을 높여 다시 소리를 지르자, 잠시 후 안으로 퐁퐁 장지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나왔다.

“다들 뭣들 하길래 내가 나오느냐?”
“아범은 밖에 나가고 돌이 어머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음.”

김영감은 사뭇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밖에 거지 녀석이 온 모양이다. 가서 줄 것이 없다고 돌려보내라.”

“아버님 거지가 아니오라 시주를 얻으러 온 스님입니다.”
“스님? 스님은 무슨 스님이란 말이나? 아무튼 나는 저 목탁과 염불 소리가 듣기 싫으니 어서 물러가라고 일러라.”

김노인은 장죽을 몇 번 빨더니 며느리에

게 말했다.
“아니, 왜 멀거니 섰느냐?”
“아버님, 시주를...”
“시주를 해야 한다는 말이나?”
“네.”
김부자 영감은 며느리 말을 듣고 한동안 장죽만 뿅뿅 빨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던 지 무릎을 탁 치며 말했다.

“웁지 그래, 추수를 무사히 끝냈으니 시주를 할 만도 하구나. 이왕 할 바에야 듣직 하게 해야 할 게 아니냐! 얘 아가, 너 외양간에 가서 쇠똥을 잔뜩 긁어 오너라.”

“아버니, 쇠똥을 어디에 쓰시려구요?”
“다 쓸데가 있느니라.”
“아버님 흑사...”
“글쎄 어디다 쓰든 넌 어서 쇠똥이나 긁어 오도록 해라. 어흠.”

김영감은 큰 기침을 하며 재떨이에 장죽을 탕탕 털었다.

윤부인은 마음에 집히는 바가 없지 않았으나 시아버지 분부를 거역할 수 없었다. 외양간에서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으나 윤부인은 코를 막은 채 쇠똥 한 삼태기를 담아 대청 앞 댓돌 아래 놓았다.

“아버님, 쇠똥 긁어 왔습니다.”
김영감은 김이 무럭무럭 나는 쇠똥을 보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큰 쌀자루에 쇠똥을 담았다. 그러더니 그 자루를 들고 대문으로 나갔다.

스님은 그때까지 염불을 외우고 있었다.
“여보슈, 어디서 온 스님이오?”
“예, 구월산 월선사(月仙寺)에서 온 시주승입니다.”

“면길을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소. 자, 이건 내 정성이니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스님은 쇠똥이 들어있는 쌀자루를 받아 들고 천천히 동구밖으로 사라졌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윤부인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급히 광으로 가서 쌀을 두 되쯤 퍼들고 급히 스님을 쫓아갔다.

“스님, 스님, 저 좀 보셔요.”
“왜 그러시오? 부인.”
“그 쌀자루는 저를 주시고 대신 이 쌀을 받으세요. 아까 그 쌀자루 속엔...”
“허허,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셨군요, 스님. 용서하세요. 아버님은 본래 나쁜 분이 아니라 장난을 좋아하시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관용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김부자택 내에 이토록 고매한 분이 계시다니...”
윤부인의 인품에 감탄을 한 스님은 그녀를 도와주겠다며 다음과 같이 일러줬다.

“오늘 저녁 이 마을에 큰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큰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식구들에게 알리지 말고 곧 집을 떠나 앞산으로 올라가세요. 가는 길에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산에 다 오르면 뒤에는 관찰으나, 중간에 뒤를 돌아다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말을 마친 스님은 입 속으로 염불을 외우며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윤부인은 갑작스런 말에 얼떨떨했으나 스님의 말에 따르기로 결심을 했다. 그날 저녁,

하늘에 검은 비구름이 덮이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윤부인은 낮에 스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식구들에게 할까 망설이다 그대로 집을 나와 앞산으로 향했다.

“우르릉 광” 번개와 천둥이 치며 마치 천지를 개벽할 것만 같았다.
“사람 살류.”
“여보, 나 좀 살려줘.”

마을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 남편의 소리도 들리는 듯했으나 윤부인은 스님의 말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산을 올랐다.

윤부인이 산 중턱까지 왔을 때였다. 마을 한 부분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남편과 시부모의 비명이 그녀의 귓전을 스쳤다.

“얘, 아가야 아가야.”
“여보 나 좀 살려줘.”

그 소리는 처절한 울부짖음이었다. 순간 윤부인은 스님의 당부도 잊은 채 고개를 돌려 마을 쪽을 내려다보았다.

“어머, 우리집이...”
마을은 황토물 바다가 되어 있었다.

“여보, 아버님.” 그녀는 목이 터지게 남편과 시아버지를 불렀으나 어느새 사람의 소리는 간 곳이 없었다.

윤부인은 아픈 가슴을 어찌지 못한 채 다시 위로 발길을 돌리려 했다. 그 순간 부인의 발이 무겁고 감각이 둔해지는 것이었다.

발을 내려다본 윤부인은 그만 ‘아악.’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발은 바위로 변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온몸이 바위 형태로 변하고 말았다.

착한 마음으로 시아버님의 죄를 씻으려던 윤부인은 산을 오르다 뒤를 내려다보는 모습 그대로 바위가 되어 세월의 풍우(風雨)에 시달리고 있다. 그 후 마을은 ‘며느리바위 동네’라 불리고 있다.



시주(단원 풍속도첩)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상조 서비스 “유성라이프”

- 차별화된 100% 후불제 시스템

- ▶ 앰블런스 관내제공
- ▶ 장례1급 지도사 파견 및 도우미 파견
- ▶ 고급오동관 등 최고급 고인용품 제공
- ▶ 남여 상복 등 의전용품 제공
- ▶ 리무진 버스 45인승 서비스(화장장 왕복 제공)
- ▶ 운학원통 유골함 제공
- ▶ 공원묘지, 납골당, 장례식장, 이장, 개장 등 알선 서비스

앞으로 좀 더 많은 여러분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루 가내에 평온과 화목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문의 : 1833-2545

숲속 한방랜드(주) 시 숲가마 사우나

도심에서 즐기는 숲가마 찜질 여행
당신의 생활 속 편안한 휴식을 드립니다.

서대문구 봉원동 51 (시내버스 7024번 종점)
전화 : 02)365-2700~1

조상의 풍류와 낭만을 따라서...정자(亭子) 기행 61



수옥정(漱玉亭) 충청북도 기념물 제24호 /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수옥정(漱玉亭)

시원한 폭포수와 울창한 숲을 조망하기에 좋은 정자

조선조 연풍 현감으로 있던 조유수(趙裕壽·1663~1741)가 1711년(숙종 37)에, 우의정을 지낸 자신의 숙부인 동강 조상우(趙相愚·1640~1718)를 기리기 위해 '수옥정(漱玉亭)'이란 이름으로 지은 정자이다. 1775년에 발행된 '연풍군읍지'의 지도에는 고을의 동북 방향에 지명과 함께 수옥정이 그려져 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정자는 남아 없어졌다. 그러나 1960년에 이르러 이 지역 주민들이 괴산군의 지원을 받아 수옥폭포 근처에 팔각정을 새로 지었다. 새로 지은 정자에 '수옥정(漱玉亭)'이란 편액을 복원하였다.

건물은 팔각형의 지붕을 8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으며 지붕 처마는 겹쳐마로 만들었고 지붕의 꼭대기에는 절병통이 설치되어 있다. 8면 모두 개방된 형태로 주변 경관을 조망하기에 좋은 구조이다.

수옥정 근처에는 길이 20여 미터의 수옥폭포가 있는데, 수옥정 보다는 이 폭포가 일반인에게는 더 알려져 있다. 폭포의 수량은 많지 않으나 바닥을 파내어 물이 고일 수 있도록 조성하였고 상류의 두 곳은 깊은 소(沼)를 이루고 있다. 전체적인 폭포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치마처럼 펼쳐진 절벽과 숲 사이

에서 물이 떨어지는 모습이 매우 아름답다. 3단으로 이뤄진 폭포 아래로 낙하하는 물의 포말과 낙수 소리는 한여름의 더위를 잊게 해주기에 충분하다. 물론 한겨울에는 폭포가 얼음기둥으로 바뀌어 서늘한 냉기가 흐른다.

이곳은 고려말기에 공민왕이 흉건적을 피해 초가를 지어 행궁을 삼고 작은 절을 지어, 불자를 삼아 폭포 아래 작은 정자를 지어 비통함을 잊으려 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곳이기도 하다.

수옥폭포에서 풍류를 즐겼던 통신사 일행이 남긴 '동사일기(東棧日記)'에는 수옥폭포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깎은 듯한 석벽이 삼면을 둘렀고 고목이 울창하게 뒤엎혔다. 공중에 달린 폭포는 10여 길이 넘고 가루분처럼 튀는 물방울을 보니 마치 눈이나 서리 같고, 폭포수는 절구질하듯 돌항아리에 그대로 쏟아져 내려 조그마한 못을 이루었다. 못가에는 판판하고

널찍한 반석이 있어 마치 궁중의 무대 같고 죽히 백여 명은 앉을 수 있다."

수옥정 마루에 앉으면 옷이 수옥폭포를 감상할 수 있다. 정자 옆의 소나무와 그 사이로 떨어지는 폭포수는 가히 일품이다.

글/사진 선암 석인철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수옥폭포

☺ 봉원사 주차장 이용안내 ☺

봉원사를 찾아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봉원사를 방문하시는 신도분들께서는 종무소나 각 화주스님께 문의하시어 무료주차증을 발급받으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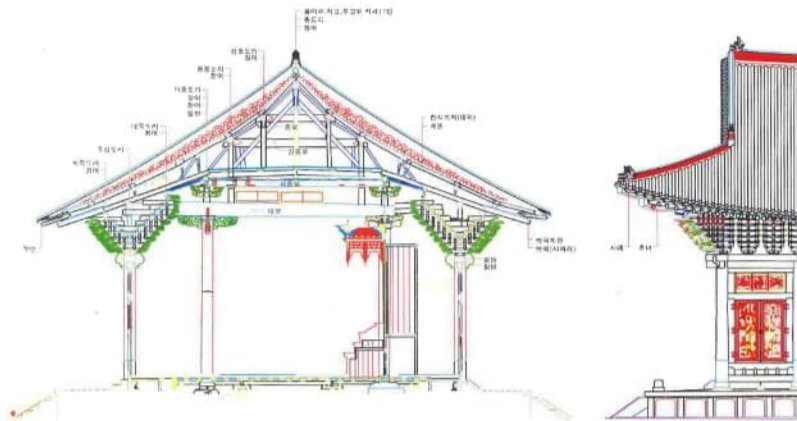
주차증이 없는 경우에는 요금(30분 무료, 이후 10분당 5백원)이 발생합니다. 주차장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일반요금 : 기본 30분 무료, 이후 10분당 500원
- 무료주차 : 주차증 제시
- 문 의 : 종무소(02-392-3007~8)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삼천불전(三千佛殿) 보수·정비 불사

삼천불전 보수·정비 불사 계획도



모연부재목록 (시주내용)							단위:만원	
부재명	주너	사래	도리	장어	서까래	개판	부연	기와(대외)
모연금	500	200	100	50	20	20	10	2

□ 시주문의 : 종무소 02-392-3007~3008



삼천불전 전경



삼천불전 비로자나불

부처님 말씀에 '불사(佛事)는 복전(福田)이라', 모든 중생에게 복에 종자를 심는 큰 터전이라 하셨습니다. 천년고찰 봉원사에서는 삼천불전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불사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장애를 모두 극복하여 보수·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불교 전통문화 보전과 수행환경 개선을 위한 불사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큰 공덕을 짓는 의미있는 불사에 많은 신도님들 동참하시어 소중한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종무소(02-392-3007~8) 및 각 화주스님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 봉원사 자원봉사단 단원모집 안내 ✧

귀의 삼보하옵고, 봉원사 도량내 기와불사와 시주접수처 업무 및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아울러 봉원사에서는 정기적으로 군부대, 소년원 등 사회 각지에 부처님의 자비가 내려질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종교를 초월하여 손길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파하는 활동에 함께 참여하거나

도움을 주실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종무소(02-392-3007~8)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